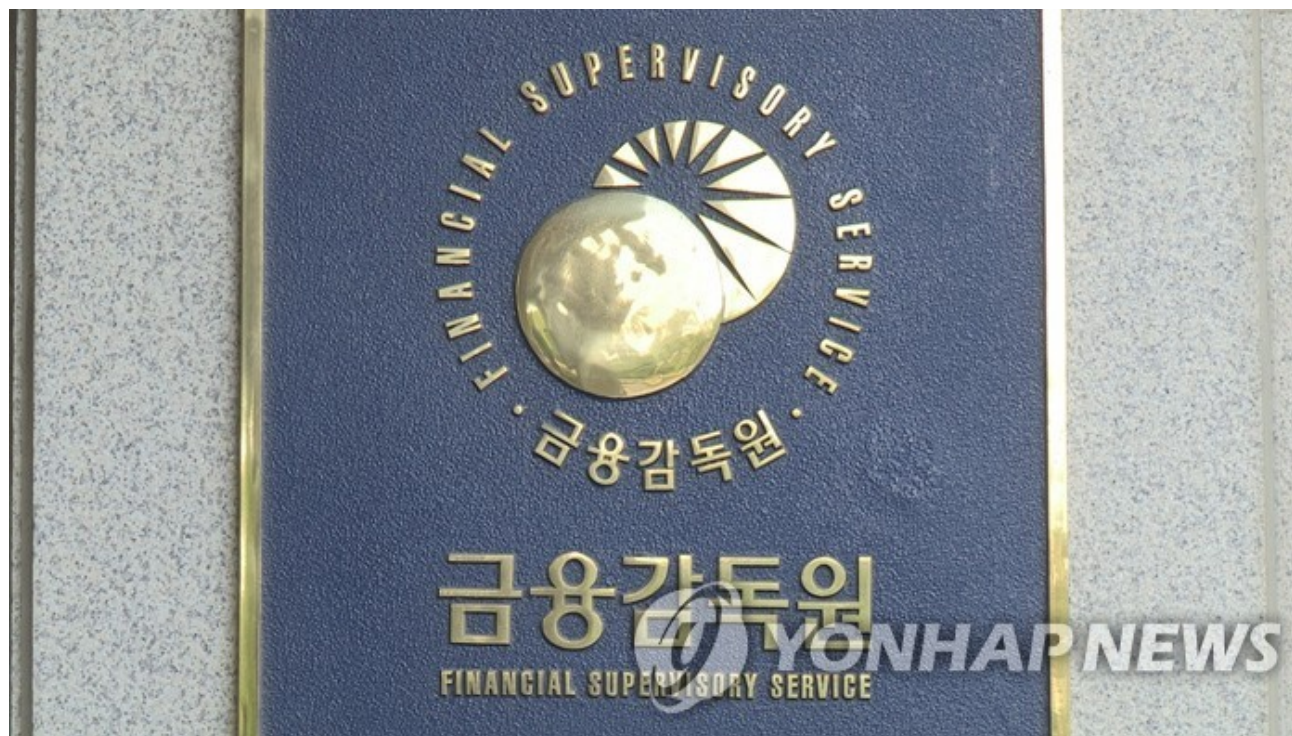


금감원 "사회초년생, 보험 가입시 소득수준 등 고려해야"

송고시간 | 2023-05-23 12:00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서 보험은 비교적 장기간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내 편에 따르면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 연금 등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는 등 가입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비용 등이 공제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종신보험보다는 정기 보험이 훨씬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며 실손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president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23 12: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